

함글함글

가족이 신앙교사입니다 신 6:5~7, 엡 6:4, 삿 2:10
2021년 주님의교회 표어



431
2021.1.31
신년특집호

오늘의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_에베소서 5장 8,9절

오늘의 주요기사

2 신년 설교
4,9 교회 소식

5-8 2021년도 제직 편성
10 유유청청 겨울수련회

11 신임 교역자 인사
12 함글함글 신춘문에 발표



다시 한 걸음 내딛는다

지난 해 코로나19의 광풍이 남긴 상처 위에 1월 28일 돌연 소복하게 눈이 내렸다. 청량한 겨울 하늘 아래 바람이 맵다. 남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에게 이정표가 될 것이니, 눈길 함부로 걷지 말라고 경계하던 선현의 말이 떠오른다. 새해 다짐 되뇌며, 다시 한 걸음 신중하게 내딛는다.

가족이 신앙교사입니다

-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 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 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 어린이들의 회당 입학식 때의 광경은 우리에게 아주 생소하지만 적잖은 교훈이 됩니다. 입학하는 날 새벽, 아버지가 아들을 깨워 먼저 회당으로 데리고 갑니다. 회당에 있는 두루마리 성경 앞에 둘이 무릎을 꿇고 앉아 아들에게 스무 절 내지 서른 절을 읽어 줍니다. 그러면 아들은 따라 읽습니다. 다음에 회당 부근에 있는 선생님 집으로 아이를 인도합니다. 회당의 선생을 하잔이라고 하는데 하잔은 어린이를 부둥켜안고 환영을 합니다. 하잔은 어린이를 회당에 있는 돌판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돌판에는 성경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이 말씀을 외게 한 다음에 꿀단지를 이 돌판에 부어 꿀이 흐르게 합니다. 어린이는 얹드려 꿀을 핥아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다"하는 것을 몸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어서 하잔과 어린이와 아버지가 함께 무릎을 꿇고 기억력과 모든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입학식이 끝납니다. 입학식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신년주일을 맞습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을 말씀으로 삶을, 삶을 말씀으로 나누는 것이라 믿어집니다. 그래서 2021년 표어를 '가족이 신앙교사입니다'로 정했습니다.

가정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족이 말씀을 기준삼아 서로 서로에게 신앙교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줄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일상 속에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이기 아니라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나누기 위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말씀을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야 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할까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도장 새기듯이 선명하게 새겨야 합니다. "흐릿하게가 아니라 선명하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배우는 사람도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함께 나누는 사람도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그 어떤 대

적들도 물리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세상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등학교에만 들어가도 우리의 일상은 곳곳에서 이 마귀와의 전쟁터입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마귀는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이 싸움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너무 만만하게 보고 달려들면 번번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술책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와의 싸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들이 우리와 붙었다 하면 100전 100패하는 것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밭에 선명하게 새겨진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 밭에 선명하게 새겨진 그 말씀을 보면, 마귀는 꼬리야 나 살려라하고 도망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밭에 선명하게 새김으로 세상속에서 싸움을 거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100전 100승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7절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참으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부지런히'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때때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역류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자녀를 위한 것인가? 라고 세상 사람들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 속에 발 딛고 살지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성공만을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to do)에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to be)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기(to do)전에,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to be)를 먼저 생각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to do 하기 전에 먼저 to be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선명하게

새겨진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짓되고 잘못된 길이 아니라 정직하고 바른 길을 선택해 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 존재해야됨을 가르치면 그 아이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길에는 무엇을 할까보다 어떻게 존재하는가가 더 중요한 순간이 반복해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건실한 사회 일꾼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를 못된 자녀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부지런히 전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더욱 커지도록 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녀들의 열정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인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 가정의 신앙의 상속이 단절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마치 칼을 갈 때에 처음에는 이쪽으로 갈고 다음에는 저쪽으로 갈듯이 그들의 마음속에 교훈이 뿌리박아 그들 마음속에 그것들이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듯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8~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구절의 손은 마음속의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신체기관입니다. 그래서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속의 행동지침으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미간은 대체적으로 인간의 지성과 사고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미간에 붙이

라는 말씀은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열심에 열심을 경주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은 6절 말씀을 통해서 부모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마음에 새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8-9절에서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일상 속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손을 사용하고 또 실천을 위한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는 이 쉼마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나라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에 그 방점이 찍혀짐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변화 잘 안된다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잘 안변하더라고 말하기도 하잖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가슴팍에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지면 그 말씀을 따라 살 고자 씨름하고 또 씨름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 되새김질되는데 어찌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가족이 변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서로에게 신앙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쉼마의 이 말씀을 가슴에 선명하게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자녀들도 부모 세대인 우리를 따라서 조부모 세대인 우리를 닮아서 하나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2021년 신년주일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신앙교사가 되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고 가정에서 신앙교사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들로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김화수 담임목사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부지런히 전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더욱 커지도록 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녀들의 열정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인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 가정의
신앙의 상속이 단절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코로나19로 교회 안팎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던 2020년의 마지막 날, 주님의교회 송구영신 예배가 실시간 유튜브 방송예배로 진행되었다.

이날 2020년을 돌아보는 영상이 상영되었으며 김화수 담임목사는 ‘관계는 거울과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했다.

김화수 담임목사는 이 설교를 통해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보냄과 맞음의 그 경계선에 설 때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보냄과 맞음의 그 흔적이 쌓여서 생의 종착역에 다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는 뜻깊은 시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고 말하면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으로 “큐티하는 삶의 회복”과 “성경 말씀 암송” 두 가지의 실천을 제안했다.

함글함글

신년특별새벽기도회

2021년 신년특별새벽기도회가 1월 4~9일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주제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비대면 유튜브 실시간 방송예배를 통해 진행되었다. 4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로마서 12:1), 5일 ‘예배자의 헌신’(레위기 1:1~3), 6일 ‘예배의 감격’(사무엘하 6:16~23), 7일 ‘영과 진리로 예배’(요한복음 4:23~24), 8일 ‘진정한 예배자’(누가복음 7:36~50), 9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말라기 1:6~14)의 주제였으며 강사는 김화수 담임목사가 맡았다.

함글함글



장신대 김정형 교수, <신학이란 무엇인가> 유튜브 강의 개설



2020년 11월 17일, 주님의교회에 부목사로 재임했던 장신대학교 김정형 교수가 <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유튜브 강의를 개설했다. 이

강의는 김정형 교수와 햇볼트리니티대학원 대학의 김진혁 교수가 함께 알리스터 맥그래스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제6판 출간 기념으로 기

획되었으며, 총 18회에 걸쳐 진행된다. “오늘날 우리의 신학에 대해서만큼 과거의 신학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에 속할 자격이 없다. 모든 신학자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라는 칼 바르트의 말로 시작하는 이 강의는 그 첫 번째로 1강 교부시대-신약과 교회의 연결고리라는 장이 11월 17일 올려졌으며 이후 “신앙 없는 신학은 가능한가?”, “중세와 르네상스-중세는 신학의 암흑기”등이 이어졌다. 각 편 10~15분 내외이다. 이 강의를 시작한 김정형, 김진혁 교수는 일반 교인들에게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친숙하게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튜브에서 ‘신학이란 무엇인가’를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다.

함글함글

교회 용어, 이것만은 고치자(양코르 연재) > 예배, 예식용어 편 9

‘제단’이 아니라 ‘성단’

제사, 제단, 제물(X), 예배, 성단, 예물(O)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가져온 소나 양을 잡아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여 놓고, 제물의 피를 단에 뿌린 뒤 그것을 불살랐다. 이것이 곧 레위기의 제사요, 이 단이 바로 모세의 제단이며, 죽임을 당한 소나 양들이 희생의 제물이었다. 이 제사는 마침내 모든 제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성되었고, 신약시대에 들어 예배로 내용과 형식이 변화되었다. 그러나, 현대의 한국교회는 지금도 예배를 제사의 의미로 이해하며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단에 나와서, 작은 제물을 바칩니다.”한국 문화의 특징으로서 제의적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점을 지적한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신화, 민속, 종교의식 등이 모두 제단 근처에서 성육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구약의 제사용어를 예배 속에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부자연스러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한국교회 역시 제의적인 문화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다. 제사는 ‘예배’로, 제단은 ‘성단’으로, 제물은 ‘예물’로 바꾸어야 한다. 한편, 제단을 ‘강단’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으나 이것은 성례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교만 이루어지는 단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말이므로 ‘성단’이라 함이 적절하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자료 / 함글함글 정리

2021 제직부서 편성

- **공동의회 / 의장** : 김화수 목사 **서기** : 이용수 장로 • **당회 / 당회장** : 김화수 목사 **서기** : 이용수 장로 **재정** : 강석인 장로 **감사** : 동현수 장로
 • **제 직 회 / 의장** : 김화수 목사 **서기** : 홍완식 안수집사

1. 목양위원회

위원회	간사장로	분과위원회	위원장	교역자
목양	배익환	예 배	배익환 장로	황바울 목사
		음 악	김광일 장로	이종성 목사
		소그룹	김유호 장로	허 준 목사
		젊은이	유정식 장로	한시영 목사
		양 육	이성준 장로	박주영 목사
		봉 사	신형섭 장로	이진희 목사

1) 예배 분과 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	부	부장
1	예배부	나관주 안수집사	3	성찬부	유윤실 권사	5	중보기도부	설정희 권사
2	안내부	임정식 안수집사	4	세례부	이창수 안수집사	6	새벽기도부	김복수 안수집사
						7	할렐루야 찬양대	김광희 권사

2) 음악 분과 위원회

#	부	지휘자	부장(대장)	반주자(오르간/피아노)	#	부	지휘자	부장(대장)	반주자(오르간/피아노)
1	호산나찬양대	민태경	장대회 집사	마안나 / 조선희	3	샬롬 찬양대	강진명	김정래 안수집사	김효종 / 정이와
2	시온 찬양대	양재무	황남호 안수집사	박혜선 / 정호정	4	임마누엘 찬양대	이명국	박용좌 집사	김성희 / 김혜경

3) 소그룹 분과 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소그룹지원부	김은희 권사	2	은사사역부	류혜경 권사

4) 젊은이(8교구) 분과 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지원부	임익수 안수집사	2	젊은이사역부	김경미 권사

5) 양육 분과 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새가족부	고경임 권사	2	양육훈련부	민연식 권사

6) 봉사 분과 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주방부	홍기현 권사	4	도서서점부	전선재 안수집사
2	봉사부	김명훈 안수집사 / 조선옥 지도권사	5	결혼예식부	고명숙 집사
3	주차안내부	태재승 안수집사			

2. 교육위원회

위원회	간사장로	분과위원회	위원장	교역자
교육	김학원 장로	유아숲	최재경 장로	이은미 전도사
		유소년숲	김은성 장로	이상훈 목사
		청소년숲	이현식 장로	임경순 목사
		청년숲	서정하 장로	정구민 목사
		EM	김학원 장로	이진희 목사

1) 어린이 분과위원회
유아숲

#	부	담당교역자	부장(안수집사/권사) / 지도권사	#	부	담당교역자	부장(안수집사/권사) / 지도권사
1	유아숲 교육지원부	이은미	이미영	5	유아부(썩트네)	이은솔	최정윤 / 조정숙 / 강기선 / 이미화
2	아기정원	이은미	강은주 / 전진희	6	유치부(담쟁이)	이수진	송 희 / 권이홍 / 유희정 / 유혜경
3	아기부(하임)	김오정	윤석춘 / 최은실	7	어와나 커비즈	김오정	임창남 / 윤현숙
4	영아부(하늘씨앗)	서예림	최우철 / 김현진 / 이은우 / 김성은				

2)어린이 분과위원회 유소년부

#	부	담당교역자	부장(안수집사/권사) / 지도권사	#	부	담당교역자	부장(안수집사/권사) / 지도권사
1	유소년부 교육지원부	이상훈	최영인	4	소년부(아름드리)	정호영 / 이보라	이승훈 / 이영숙 / 강정여 / 최재춘
2	유년부(포도나무)	심다영	김애리 / 김영림 / 유 경 / 이경란	5	어와나 스팅스	심다영	임창남 / 이춘실
3	초등부(햇살뜨락)	이상훈	오지민 / 문현주 / 김순희 / 김경희	6	어와나 티앤티	이보라	임창남 / 천옥현

3)청소년 분과위원회

#	부	담당교역자	부장(안수집사/권사) / 지도권사	#	부	담당교역자	부장(안수집사/권사) / 지도권사
1	청소년부 교육지원부	임경순	강희정	3	고등부(비전트리)	조영찬 / 정우림	이신형 / 유정아
2	중등부(팝콘트리)	최혜원 / 이요안	김신정 / 정재영	4	어와나 트렉	백양선	임창남 / 박문숙

4)청년 분과위원회

#	부	담당교역자	부장(안수집사/권사) / 지도권사	#	부	담당교역자	부장(안수집사) / 지도권사
1	청년부 사역지원부	정구민	정락영 / 최정숙	2	청년부	김종희 / 이충만 / 김세연	민병준 / 김선미

5)EM 분과위원회

#	부	담당교역자	부장(안수집사/권사) / 지도권사	#	부	담당교역자	부장(안수집사) / 지도권사
1	영어예배부	이진희	김윤수 / 이광실	3	한국어교실부	이진희	김경희
2	어린이영어예배부	정지인	이광실				

3. 선교구제위원회

위원회	간사장로	분과위원회	위원장	교역자
선교구제	서준규 장로	국내선교	황용환 장로	배윤환 목사
		통일선교	김익훈 장로	이대혁 목사
		해외선교	손영익 장로	윤경수 목사
		전문선교	서준규 장로	이대혁 목사
		구제복지	김낙균 장로	배윤환 목사

1)국내선교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국내선교지원부	이성호 집사	5	협력교회선교부	함혜련 권사
2	군경선교부	복향수 안수집사	6	다문화선교부	장동현 집사
3	농어촌선교부	천정희 권사	7	기관선교부	송재승 집사
4	도시교회선교부	황석진 집사			

2)통일선교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 지도권사
1	통일선교지원부	김재민 권사	3	너나들이부	박동구 안수집사 / 신영숙 권사
2	하나원부	강대수 안수집사	4	대외활동지원부	최명철 안수집사

3)해외선교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해외선교지원부	박석진 안수집사	4	선교지역 1부	김용규 안수집사
2	선교기도교육부	안경희 권사	5	선교지역 2부	김경희 권사
3	비전트립지원부	이재홍 안수집사	6	외국인유학생선교부	김용수 집사

4)전문선교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기획운영부	이동희 안수집사	5	사진부	박진현 안수집사
2	성극부	손경숙 권사	6	이미용부	임미희 집사
3	스포츠선교부	정승아 권사	7	법조선교부	윤승진 집사
4	무용부	박설리 집사	8	의료선교부	박준명 안수집사

5)구제복지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교역자	부장
1	구제부	김중호 안수집사	4	전화상담부		방혜령 집사
2	복지부	김형세 안수집사	5	사랑나무부	노홍주	탁준한 안수집사
3	호스피스부	김영미 권사	6	장애인사역부	김은선	한재희 안수집사

4. 부설기관

1)청소년사역원

담당 장로 : 심동욱 장로
담당 교역자 : 임경순 목사

#	부	부장	#	부	부장
1	청사원지원부	신기숙 권사	3	반가운학교부	이은영 권사
2	학원선교부	장현주 권사	4	꿈나무부	권이홍 권사

2)(사)섬김과나눔

담당 장로 : 조병길 장로
담당 교역자 : 이대혁 목사

#	부	부장	#	부	부장
1	사무국	이철용 안수집사	6	송파구립가락본동어린이집	나익연
2	늘푸른대학부	홍운식 안수집사	7	송파교육복지센터	박은경
4	생활지원부	소봉순 권사	9	마천종합사회복지관	김선화
5	특별구제부	오선희 권사			

3)뷰티풀페어런팅센터

담당 장로 : 손천숙 장로
담당 교역자 : 한시영 목사,
이은미 전도사

#	부	부장	#	부	부장
1	가정사역부	임익수 안수집사	2	가정사역훈련부	김유경 권사

5. 전문위원회

위원회 / 센터	위원장	위원		부서장
기획조정위원회	김화수	이용수, 배익환, 강석인, 서준규, 이성준, 김낙균, 이은석		
대외협력위원회	이용수	이성준, 황용환, 조병길, 김광일, 이현식, 최재경, 임경순		
인사위원회	김화수	이용수, 김유호, 김익훈, 김은성, 이현식		
예산심의위원회	김화수	이용수, 김학원, 배익환, 강석인, 서준규, 이성준, 김광일		
미디어관리위원회	심동욱	유정식, 손영익, 김낙균, 서정하		홍보출판부 : 장경식 안수집사 역사자료관리부 : 정원영 안수집사
사무국운영위원회	김화수	이용수, 강석인, 황용환, 유정식, 손영익, 조병길, 김익훈		
선거관리위원회	황용환	손영익, 김광일, 김은성, 이현식, 신형섭, 박주영		
치리위원회	김화수	이용수, 손천숙, 김유호, 심동욱, 유정식, 김광일, 이은석		
장학위원회	김유호	김학원, 배익환, 심동욱, 서준규, 조병길, 김은성, 김낙균		장학부장 : 최명철 안수집사
상례위원회	상반기: 김성구 하반기: 유정식	신형섭, 서정하, 최재경		상례부장 : 정준호 안수집사
재정위원회	강석인	계수1부 : 최봉수 안수집사	계수2부 : 정만희 안수집사	재정부장 : 김용철 안수집사
감사위원회	동현수	구태호 안수집사, 신영숙 권사		

* 상례위원회 하임찬양대 : 대장 - 김예경 권사 / 지휘 - 조정숙 집사 / 반주 - 유혜경 권사 외 24명

강경희 고유자 김영희 김예경 김종석 김현진 김희수 문연자 박경희 서정하 오현욱 유소자 유혜경 이미화
이소연 이소현 이준완 이효두 임성은 임연옥 정하선 조보연 조정숙 홍정미

6. 기관 및 자치회 회장

기관 및 자치회	회장	기관 및 자치회	회장
1여전도회	김운선 권사	1남선교회	최재규 안수집사
2여전도회	최정숙 권사	2남선교회	이상선 안수집사
3여전도회	이민숙 집사	3남선교회	정상기 안수집사
4여전도회	박선주 권사	4남선교회	이재덕 안수집사
5여전도회	고선애 집사	5남선교회	박성갑 집사
6여전도회	임광희 집사	안수집사회	김익환 안수집사
권사회	고경임 권사	장로회	김학원 장로

7. 담당 교역자

교역자	교구 / 부서	주요 사역(위원회)	기타 사역 및 기관
이은석 목사	선임행정	전문위원회(기획,인사,치리)	사역총괄, 목회행정, 피택자교육, 자치회(장로회)
허 준 목사	3교구	소그룹분과위원회	교적관리, 상례위원회, 자치회(권사회)
황바울 목사	1교구	예배분과위원회	성찬/세례 · 입교, 중보기도, 자치회(안수집사회)
박주영 목사	2교구	양육분과위원회	기획, 새가족, 양육클래스, 선거관리위원회,자치회(여전도회)
이종성 목사	6교구	음악분과위원회	찬양사역, 자치회(남선교회)
한시영 목사	8교구	젊은이분과위원회	Beautiful Parenting Center, 큐티사역, 자녀축복기도회
윤경수 목사	7교구	해외선교분과위원회 미디어관리위원회	미디어행정(IT/방송/음향), 함글함글
이대혁 목사	5교구	통일선교분과위원회 전문선교분과위원회	사단법인(섬김과 나눔) 새벽기도헌신자
배윤환 목사	4교구	국내선교분과위원회 구제복지분과위원회	장애인 사역부
이진희 목사	EM	EM분과위원회 봉사분과위원회	영어예배, 어린이영어예배, 한국어학교
이은미 전도사	영유아	어린이분과위원회(유아숲)	유유청청 및 유아숲 총괄, 가정과교육연계 / 협력, 아기정원, Beautiful Parenting Center, 세움학당
이상훈 목사	유소년	어린이분과위원회(유소년숲)	유소년숲 총괄, 초등부, 어린이제자훈련 자녀축복기도회, 세움학당
임경순 목사	청소년	청소년분과위원회	가정과교육연계 / 협력,청소년사역총괄, 청소년사역원, 세움학당
정구민 목사	청년	청년분과위원회	청년사역총괄, 세움학당

부서 교역자

유 준 전도사	소그룹분과위원회, 양육분과위원회, 찬양, 피택자교육, 새가족	최혜원 전도사	중등부 청소년사역원
이지형 전도사	젊은이분과위원회, Beautiful Parenting Center, 큐티사역	조영찬 전도사	고등부 청소년사역원
이진명 전도사	목양실	서예림 전도사	유아숲 행정, 영아부, Beautiful Parenting Center
김종희 목사	청년부		

사역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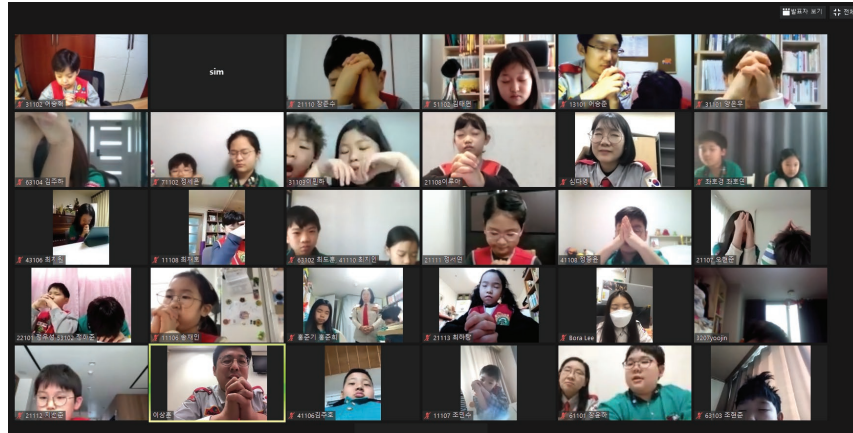
어와나 바이블 퀴즈대회 참가

2021년 1월 16일에 어와나 서울지역 바이블퀴즈대회가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어와나 바이블퀴즈에 주님의교회 불티단(7세~9세)은 17명이 참가하여 행글라이더(7세 과정)에서는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원러너(8세 과정)에

서는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개를, 스카이스토머(9세 과정)에서는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수상했다. 티앤티(10세~13세)는 23명이 참가하여 금메달 12개, 은메달 7개, 동메달 4개를 수상했다. 또한, 이은우, 장윤하, 최세운 친구는 티앤티 과정 4권의 책을 한번에 암송하

여 멀티플 복습상을 받고 한국 어와나 본부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었다.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어와나 클럽 활동도 열심히 하고 어와나 방학 기간 중에도 말씀을 열심히 암송한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축하와 감사사를 드린다.

함줄함울



사역소식

생명사랑 이웃사랑 지원

주님의교회에서는 지난 2020년 성탄절을 전후하여 봉헌된 성탄목적 현금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기금

을 통해 교회 안팎 어려운 교우와 이웃들에게 지원금을 보내 격려했다. 이 지원은 분과별로 시행되었

으며, 국내에는 형편이 어려운 교우, 미자립교회, 지역사회 주민, 너나들이 청년이 포함되었고, 해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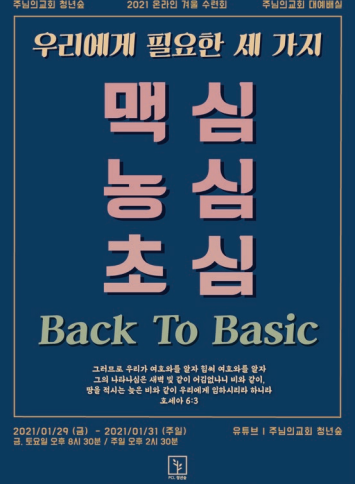
는 파송 선교사에게 지원되었다. 지원 총액은 1억 2,550만 원(통일분과 자체자금 포함)에 이른다. 함줄함울

담당분과	지원대상	지원금액 (만 원)	지원금 구성(만 원)			기타
			목적현금	예비비	부서자금	
구제복지	형편이 어려운 교우	4,500	3,420	1,080		장애우 33, 교구소속 20, 교인추천 선교사 5
국내선교	미자립교회	2,100	1,596	504		미자립교회 26
해외선교	파송 선교사	900	684	216		주님의교회 파송선교사 3
섬김과나눔	지역사회 주민, 기아대책	2,300	1,748	552		개인 143, 가구 300
청년분과	형편 어려운 청년	450	342	108		청년 3
통일선교	너나들이 청년	1,600	108	92	1,400	너나들이 청년 16
기타	코로나19 관련 지원	700	532	168		기타 7

유유청청 겨울 수련회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됨에 따라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당연하던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바꾸어놓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변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한 변하였습니다. 이제는 가정이 교회가 되었고, 부모님이 신앙교사가 되었습니다. 2021년 겨울을 맞이하여 유유청청에서는 “가족이 신앙교사입니다” 신앙 표어에 맞추어 각 숲별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겨울 수련회를 통해 온 가족이 가정교회의 신앙교사로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글함글

	숲	일정 및 장소	주제 및 내용
	유아숲	2021.2.6(토) - 오후 12시 ~ 2시, - 주님의교회(드라이브스루)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신청을 원하지 않을 경우 kids박스를 택배로 발송합니다.)	유아숲 “만나만나 Day!”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주일 날마다 교회를 가득 메웠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유아숲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전도사님을 만나는 “만나만나 Day!”로 모입니다. 이번 “만나만나 Day!”에서는 ‘사순절 컬러링 북’과 ‘예배 Kit’가 담긴 kids박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만나만나 Day!”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사전 신청자에 한해 드라이브 스루로 진행되며, 신청을 하지 않은 가정의 경우 kids박스를 집에서 택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나만나 Day!”를 통해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고, 가정교회에서 작은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유아숲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소년숲	2021.1.30(토)~31(주일) 오후 2시 / 각 가정에서(온라인)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우리 가족”(민 15:41) 2021년 유소년숲 겨울성경학교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우리 가족”(민 15:41)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30일(토) 오후 2시 각 가정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로 시작되는 이번 겨울성경학교는 1월부터 진행 중에 있는 민수기 성경 필사를 바탕으로 민수기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특별히 ‘가족 성막 체험’과 ‘성막 만들기’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의 참된 의미를 알아보고, 우리 가족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이틀간 진행되는 유소년숲 온라인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유소년숲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숲	2021.2.21(주일)~28(주일) 오전 9시 주일예배 및 각자의 삶의 자리	“빈틈 채워 함께 걷는 10대 그리스도인”(엡 5:1-2a) 청소년숲 2021년 겨울수련회는 작년 여름온라인수련회에 이어, 온라인수련회 시즌 2로 진행됩니다. 함께 모일 수 없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6가지 영역: 나, 가정, 친구, 신앙, 미디어, 환경)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도전 과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미션을 완수할 경우 적립금이 쌓이고 적립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기부금으로 전달됩니다.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있는 ‘빈틈’(아픔, 슬픔, 고통, 고난, 부족함, 연약함 등)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끌어안고 도와주며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take), 하나님을 본받는 자(give),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walkman)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숲	2021.1.29(금)~31(주일) - 금, 토 : 오후 8시 - 주일 : 오후 2시 30분 - 유튜브<주님의교회 청년숲> 실시간 스트리밍 (수련회 신청시 키트를 택배로 발송합니다)	“Back To Basic”(호 6:3) 2021년 청년숲의 슬로건은 “아는 청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공동체를 아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한해의 첫 사역인 겨울 온라인수련회를 “Back To Basic”이라는 주제로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몸과 마음의 피로도가 높은 시대, 당겨진 변화의 시대(엔택트)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이라 생각하였기에 모든 시대의 기준이자 생명인 말씀의 기초로 나아가는 것. 변화의 상황 속에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하여 예배의 기초로 나아가는 것 on·off에 상관없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모임의 기초로 나아가는 것이 이번 수련회의 목표이자 21년 한 해 동안 달려갈 신앙의 길입니다.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 취소하고, 미루는 것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으로 더욱 가까이 가는 것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에 방법을 찾고 행동하는 우리 청년숲의 모든 청년들 되길 기도합니다.

신년 특집
신임 교역자 소개

새로 오신 교역자를 소개합니다

2021년을 맞아 역량 있는 교역자들께서 주님의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신임 교역자 다섯 분을 소개합니다.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가족이 신앙교사입니다’를 주제로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모범이 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마음 깊이 환영합니다. (가나다 순)



김은선 전도사 / 장애인 사역부

우리, 서로에게 따뜻한 이불이 되기를

샬롬♥ 장애인사역부(에바다·싯딤나무)의 김은선 전도사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교회 가족들과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교회와 부서의 모든 가족들이 행복한 하나님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 되고, 깊은 삶의 교제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때때로 찾아오는 인생의 추운 시간 속에서 서로에게 따뜻한 이불이 되어주고, 사랑하며, 함께함을 하기를 원합니다. 장애인사역부를 위해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홍주 전도사 / 장애인 사역부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안녕하세요. 올해 1월부터 주님의교회 사랑나무를 섬기게 된 노홍주 전도사입니다. 예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모이기 힘든 시기임에도 사랑나무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2021년 새로운 해를 맞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랑나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윤환 목사 / 4교구

기쁨과 감사로 채워나가는 시간이 되길

하나님과 사람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배윤환 목사 인사드립니다! 주님의교회에 부임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뵙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처음의 마음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교회에 머무는 모든 시간들을 기쁨과 감사로 채워나갈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영상과 사진으로 저를 만나셨을 텐데요. 실물이 조금 더 나음을 기억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이상훈 목사 / 유소년부

다음 세대에게 우물을 파는 사역자로

2020년 12월부터 유소년부 총괄로 섬기게 된 이상훈 목사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동으로 풍성하고, 그 말씀을 잘 양육하며, 또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소년부의 영원한 교사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는 유소년부를 온전한 사명으로 성실히 섬길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혜원 전도사 / 청소년부

하나님과 함께, 청소년들과 함께 걸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 걷고 싶은 최혜원 전도사입니다. 주님의교회 중등부를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청소년기에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임을 알고 걸어갈 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짐을 경험했습니다. 청소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있도록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계선

김혜중

긴 긴 밤 고개 넘어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한 마라토너처럼
 가쁜 숨 몰아쉬고 있을 때
 그제서야 아침은
 살며시 다가와 앉는다
 철판 부딪치는 소리를 내며 올라오는
 아욱국 김치국 콩나물국 내음으로
 통증의 커튼을 걷어내면
 어김없이 그녀가 나타나
 한 웅큼의 약들을 쏟아놓고 간다
 여러 빛깔의 찌그만 고체들이
 액체로 변할 즈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하루 살아갈 기적을 꿈꾸며
 침상을 살핀다
 살포시 눈꺼풀 내려앉는데
 갑자기 낮선 소리 찬바람이 방안을 덮친다
 간밤에 먼 길 떠난
 옆자리 주인 어느새 잊고
 침상은 새 주인 맞느라 부산하다.

교회 일정

1/31(주일)	공동의회
2/3(수)	교구연합수요기도회
2/17(수)	재의 수요일

알립니다

1. 유아숲 “만나만나 Day!”

일시 : 2월 6일(토) 오후 2시

방법 : 사전신청자에 한해 드라이브 스루로 진행

문의 : 이은미 전도사(010.2376.6561)

2. 유소년 온라인 겨울성경학교

일시 : 1월 30일(토)~31일(주일)

주제 :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우리 가족(민15:41)

문의 : 이상훈 목사(010.9808.4788)

3. 청소년 온라인 겨울수련회

일시 : 2월 21일(주일)~28일(주일)

주제 : 빈틈 채워 함께 걷는 '10대' 그리스도인(엡 5:1-2a)

문의 : 임경순 목사(010.8466.0605)

4. 청년 온라인 겨울수련회

일시 : 1월 29일(금)~31일(주일)

주제 : Back To Basic(호6:3)

문의 : 김종희 목사(010.4030.7910)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심동욱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
 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hamletter@daum.net



주님의교회

함글함글 공지

제1회 함글함글 신춘문예 결과를 발표합니다

2021년 함글함글 신춘문예 당선작

수필 부문 : 당선작 없음

간증 부문 : 당선작 없음

시 부문 : <경계선> 김혜중 권사(5교구)

응모 현황과 심사 경위, 심사평과 당선자 소감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2021 함글함글 신춘문예에
 많은 관심 주셨던 여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홍보출판부